

## 문재인표 ‘주52시간’ 손본다... 尹정부, 月단위 총량관리

“노사합의 존중...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주단위 초과근로관리 선진국중 韓 유일”  
“임금체계, 초고령화 등 직무성과 위주 개선”  
使 “방향성 공감... 대체근로 등 추가개혁 필요”  
勞 “52시간제 무력화... 노동자 적대시 정책”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회복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총량 관리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주52시간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현상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다음 달이면 제도 전면 시행 1년을 맞는다.

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보완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쓰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의 적립 상·하한, 적립·사용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점점 사항을 자세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

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00시간대)보다 많다. 노동부는 임금체계도 손질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지난 4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보면 연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연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에 달한다. 일본(2.27배), 유럽연합(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다. 임금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도 이날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3년 뒤(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부 발표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근로시간 유연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합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 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조가



돌아온 칸 라이언즈 3만여명 참관 '복직' 세계 최대의 크리에이티브 축제 칸 라이언즈(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2022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됐다. 사진=이기룡 기자(프랑스 칸)

있는 기업의 38.9%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번 (정부) 발표에 노사 간 합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빠졌다”며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부가)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 방인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면서 “(이번 발표) 새로운 게 없는 맹탕 발표”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노동부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만을 내놨다”면서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직무성과 급제로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 ‘그’가 경고하자... 주담대 상단 8% → 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 지나치게 이익 추구”  
우리는행, 상단 0.9%p 낮춰... 타행도 검토 중

연 7%를 넘어 연말 8%대 진입을 목전에 뒀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상단 금리가 6%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은행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언급한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시중은행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압박 속 주요 시중은행 중 주담대 최고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은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해 상단 금리를 1%포인트(p) 가까이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금리조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상단을 한 번에 0.9%p 내린 것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4.85~5.84%)도 최고

금리를 전날보다 1.3%p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적용했던 본부 조정금리(우대금리)를 9~10등급까지 일괄 적용해 최상단금리를 낮췄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지표금리(은행채, 코픽스 등)에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산출하는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를 제한 후 결정된다.

국내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연 7%를 웃돌던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64~6.515%로 내려왔다. 주요 은행들도 여신 관련 부서들의 회의를 열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는 내부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

## “라이언즈 멤버십으로 2022 칸 라이언즈를 새롭게 경험하세요”

[Coming Soon] 칸 라이언즈 x 서울 페스티벌 9월



방법 : 멤버십 홈페이지(www.lionscreativity.com)에서 구독 선택  
요금 : 개인(259 유로), 20인 이상은 단체 등록 할인  
혜택 : 2022 칸 라이언즈 토크 영상,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 교류,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분기별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정기 뉴스레터, 템플릿·마케팅 토크 등 크리에이티브 리소스를 포함한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1년 동안 이용가능  
문의 : 칸 라이언즈 코리아 webmaster@canneslions.co.kr